



그물에 걸린 지구

해양쓰레기의 91% 이상은 플라스틱 쓰레기이다.

그 중 낚시줄·그물 등 어업 관련 플라스틱이 전체의 4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는 매년 120만t이 바다에 버려지지만, 어업의 그물만 매년 100만t이 바다에 버려진다.

매년 어업에서 버려지는 폐그물로만 지구 18바퀴를 돌 수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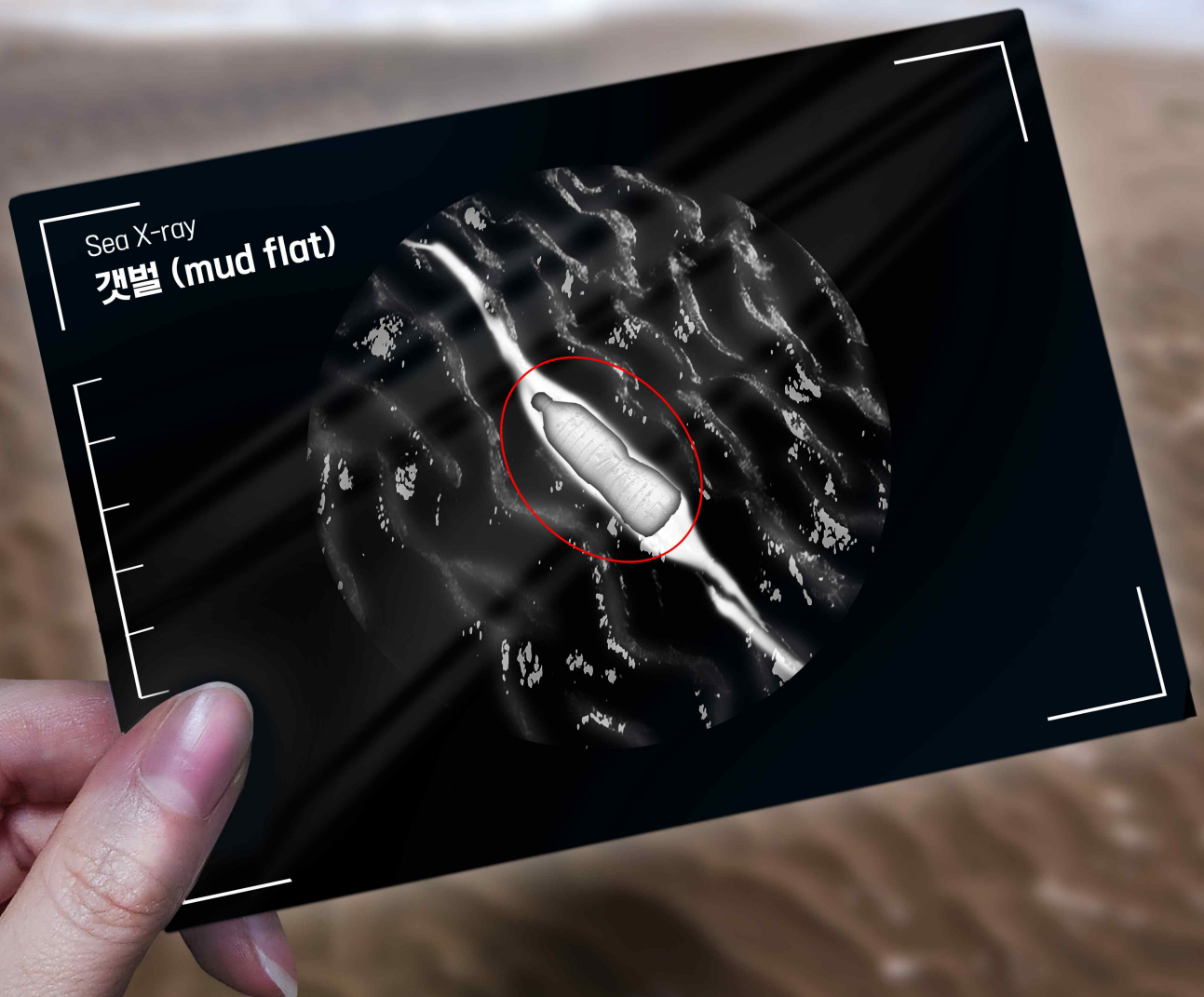
‘착각’ 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은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나라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 약 14만 5천 톤.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를 위해!

갯벌에 버린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 혈관을 막고 있어요



해양 생태계가 깨끗하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갯벌을 지켜주세요.

지구의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블루카본(갯벌)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며 지구온난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해양에 버린 작은 쓰레기들이 모여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며 지킵시다.

해양 생물의 터전은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지구 해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171조 개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00년.

소화기관이 비닐시트로 막혀 먹이를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고


작은 새의 배 속에는 200여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생사기로에 선 해양 생물을 구해주세요!


주최 |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posco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SEA GRANT
해양환경재단

후원 |  사랑의열매
인천 사랑의열매재단

바다의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바다는 마르지 않지만 바다 속 생물들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 해양 폐기물들은 해류를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미세한 해양 폐기물을 섭식하고, 소화장애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역시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지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지킬 해결의 열쇠 ‘블루카본’

환경오염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대기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등 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블루카본'은 염생식물, 갯벌, 잘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약 50배 정도의 탄소저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길입니다.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싶으세요?”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자그마치 16만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인 쓰레기를 가져가는 실천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세요!



바다에 海롭습니다

무분별한 해양 쓰레기 배출 및 기름 유출로
소중한 우리의 바다와 해양 동·식물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구 버린 바다쓰레기 해양생태계의 무덤이 됩니다

제대로 처리 되지 않고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는 바다 생물의
생존은 물론 인간까지 위협하게 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시간 바다가 더 빠릅니다

바다는 지상의 나무 숲보다 50배 이상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고
수 천 년 동안 저장할 수 있어 지구 온난화의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지구를 살리는 바다가 살아야 지구가 삽니다.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5분만에 태어나 500년을 삽니다

연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200만 톤.
5분이면 대략 100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 시킵니다.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분해되는 시간 약 500년.
1,200만톤이 500년 쌓이면 그 양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생명의 근원 바다를 쓰레기 바다로 만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때 입니다.

위험海!

해양기름유출

선박사고 및 불법폐유 유출등으로 발생하는 기름오염은
어업·양식업자원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플라스틱 공포 머지않은 미래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posco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SEA GRANT KOREA
해양환경보전사업단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어머니의 바다
하지만
모든 것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주최



POSCO
포스코이앤씨



후원



“덮지마세요”



하나뿐인 바다, 기름으로 뒤덮으시겠습니까?

기름 오염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수십 년 동안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수 만년의 태곳적 이야기가 담긴 바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때 입니다.



바다가 품은 숲

해초류와 염생식물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갯벌까지
모두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바다의 숲, 블루카본입니다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바다의 숲지기가 되어
블루카본을 지켜주세요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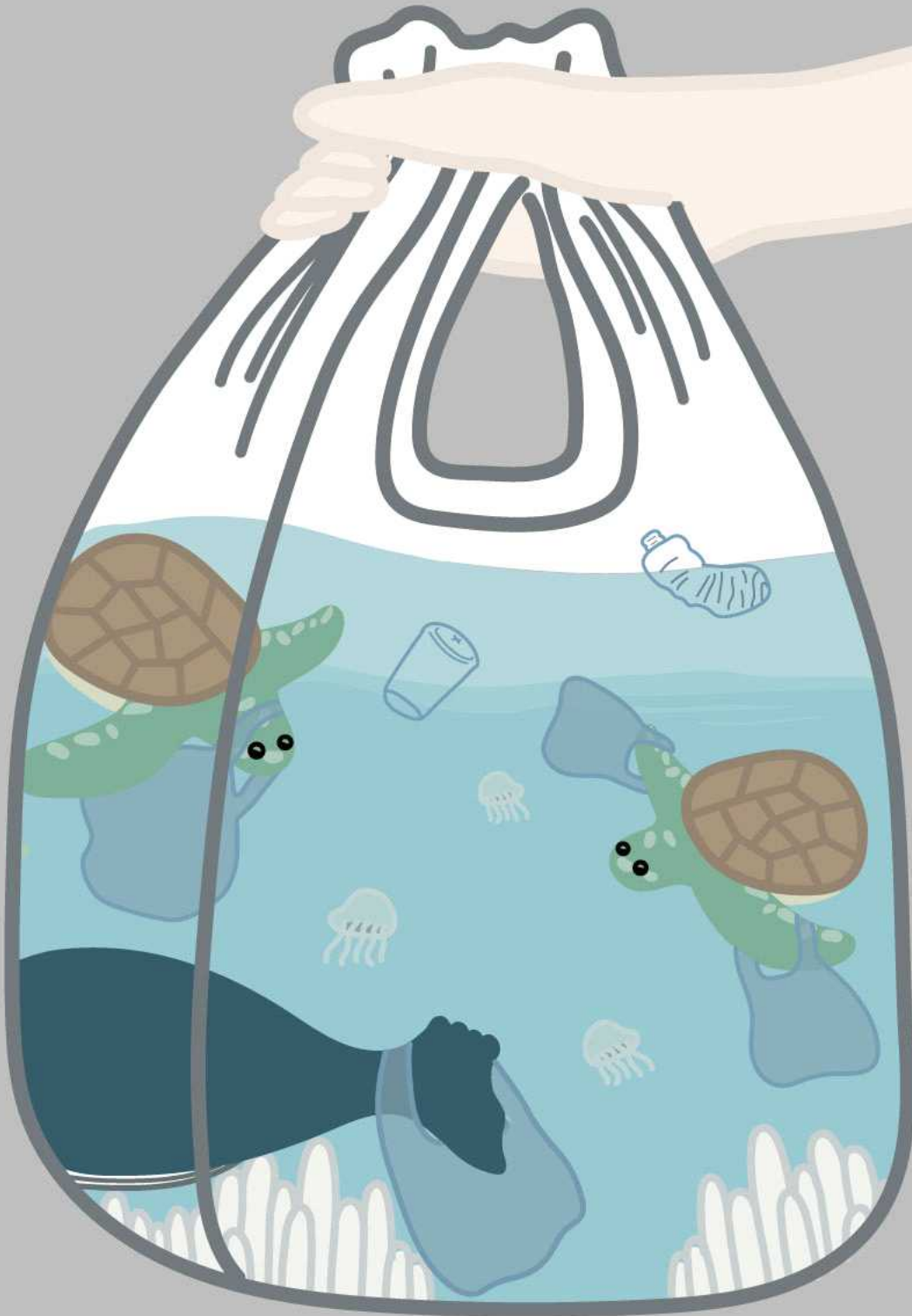


더 두렵다

해양 쓰레기가 우리의 식탁으로
되 돌아오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오늘까지만 쓰자”

아직도 오늘까지만 입니까?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주세요!

주최 |



posco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INCHON PORT AUTHORITY

SEA GRANT
KOREA

후원 |

사랑의열매
한민회계통연맹

지구의 허파 바다를 보호해 주세요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은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합니다. 지구를 치유하는 지구의 허파바다, 해양생태계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내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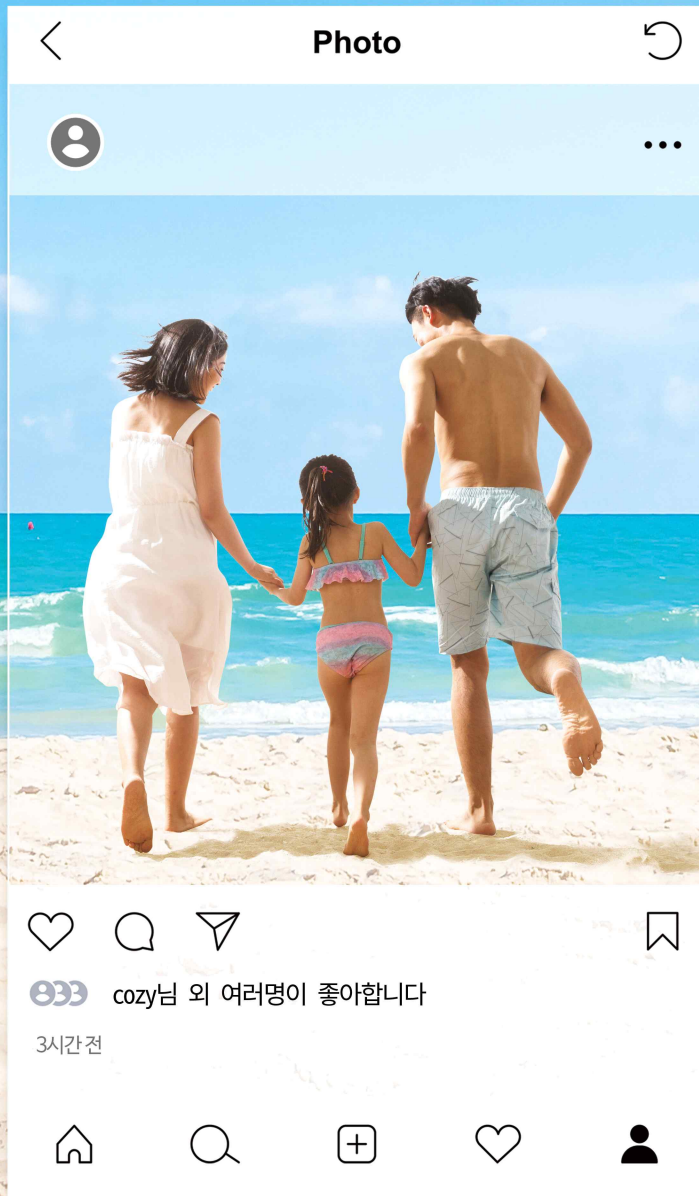
posco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후원





추억을 남기겠습니까? 쓰레기를 남기겠습니까?

추억이 떠나간 자리엔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SNS 안의 바다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SNS 밖의 현실은 양심 불량 여행객의
쓰레기들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남겨야 할 것은 쓰레기가 아닌 추억입니다.
내가 만든 흔적은 내가 치우는 해양 에티켓,
바다와 우리의 추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처럼 海 맑은 바다를 보여주세요

매해 버려지는 수십만 톤의 해양쓰레기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푸른 바다는 그 색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에는 더 이상 푸른 바다색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만이 푸른 바다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처럼 海 맑고 투명한 바다,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주최



posco
포스코이앤씨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후원





바다 그리기 대회 1등 했어요

해양 오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아이들이 마주할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둡습니다.

해양살상무기

기름유출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초토화시키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불법기름유출, 그만 멈춰주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숲,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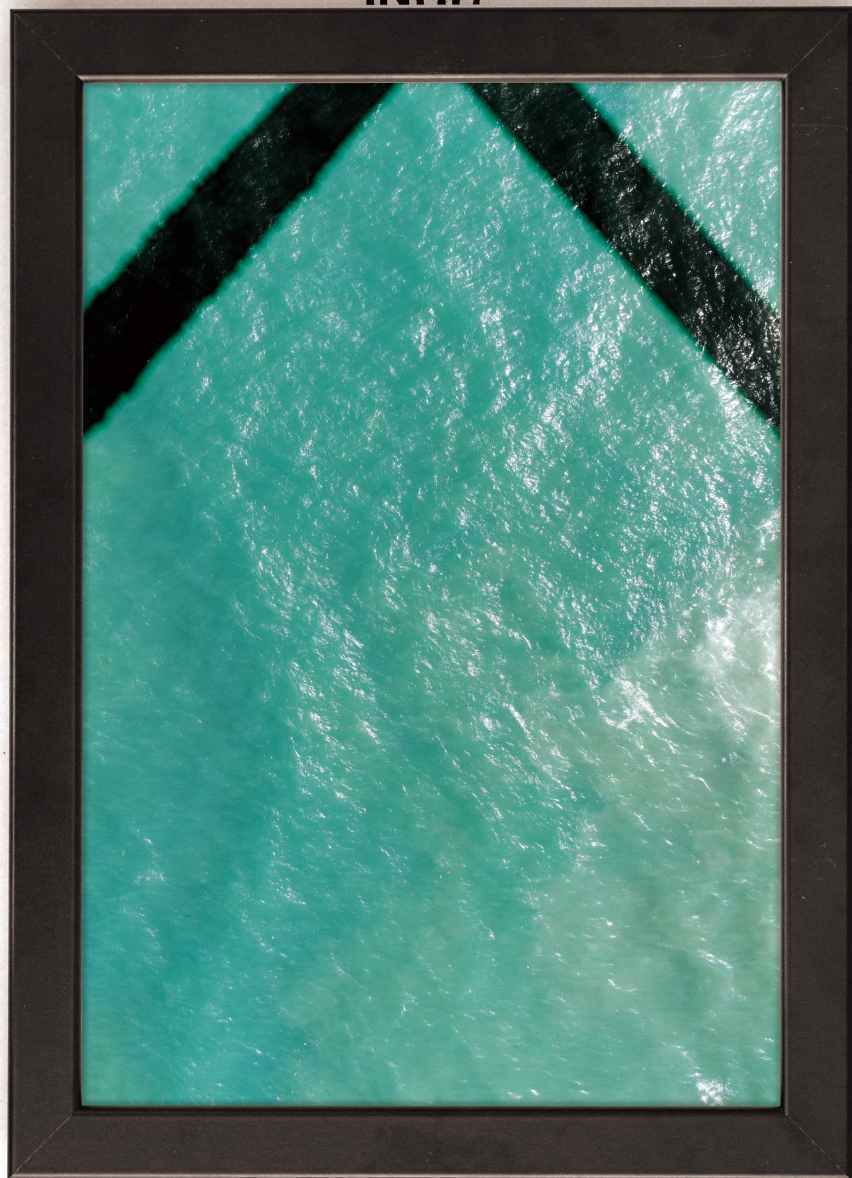
지구 산소의 70%를 만드는, 산소 생산량 1위인 바다가 사라지면 숲도 사라집니다.
숲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는 것이 지구는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만 헤엄치기를 원海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바다로 되돌려주세요





기름이 유출되는 날이 바다의 기일입니다.

무단으로 유출되는 폐기름은
해양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바	다	쓰	기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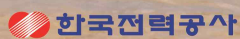
한 자 한 자 고민하며 원고지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
바다를 쓰는 것도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당신의 실천이 푸른 바다를 만듭니다.

주최



posco
포스코이앤씨



후원



쓰레기, 바다에 버리지않고 가져갈 것인가요?

바다속 생명이 가져가게 할 것인가요?

한 바다거북의 체내에 비닐봉지, 어망 등 3kg에 가까운 해양 쓰레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매년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800만 톤의 양으로 이 막대한 양의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생각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해양환경은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동과 선택은 수많은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최



POSCO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SEA GRANT
해양수산부
정기환원사업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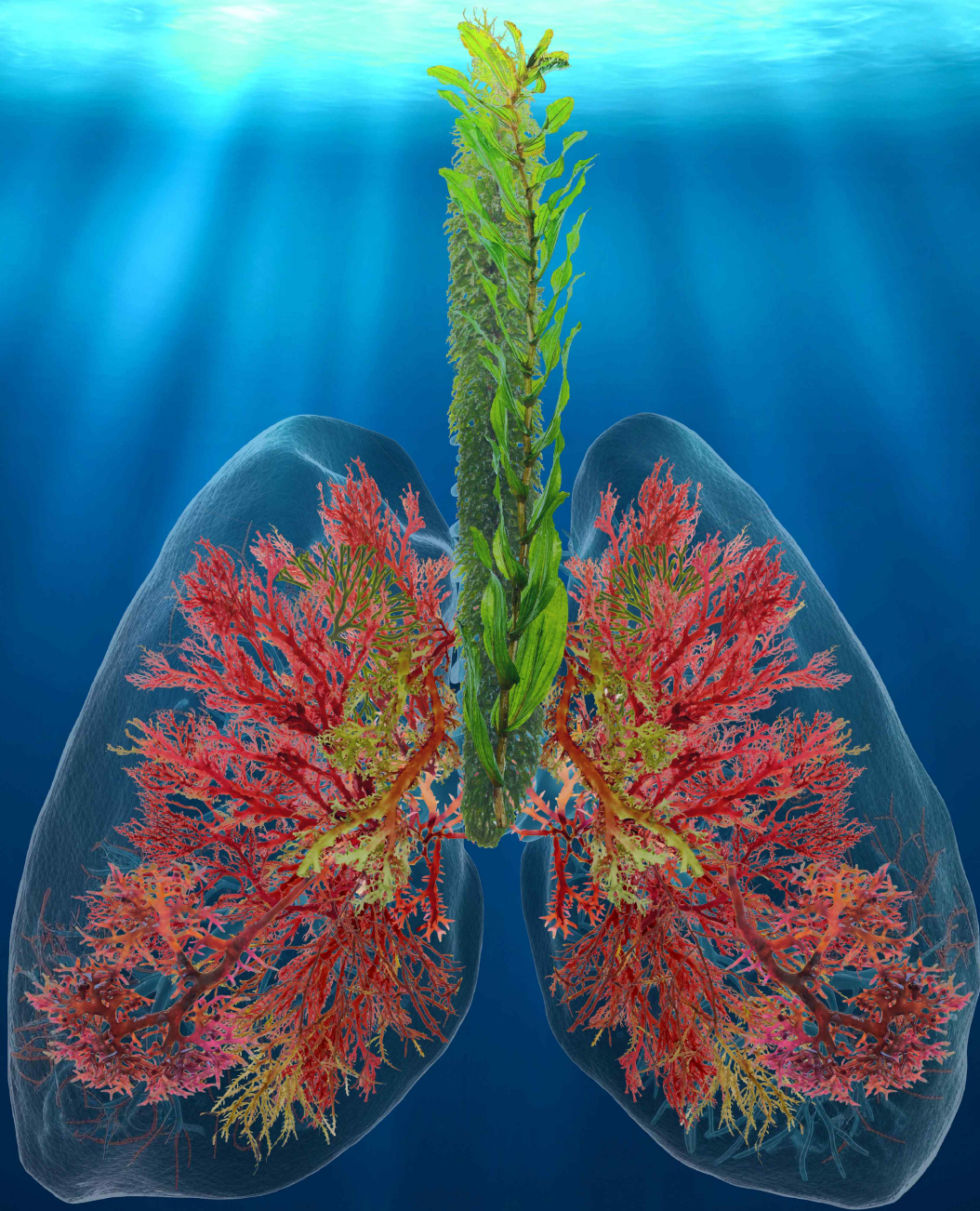
후원

사랑의열매
한국농림수산식품재단



바다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발생된 해양쓰레기 중 약 90%가 플라스틱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온 바다를 돌아다니고 쌓이면서
 수많은 해양생물과 조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해양쓰레기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바다의 숨결, 블루카본을 지켜주세요

바다의 호흡으로 지구는 치유됩니다.

해양생태계는 육지생태계보다 탄소를 최대 50배 더 빨리, 5배 더 많이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보전되어야 합니다.

해양오염으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해주세요.

블루카본: 갯벌, 염생식물, 잘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써,
탄소를 포집하거나 격리하여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주최



posco
포스코이앤씨



후원

